

문화포커스

김제시 '마을세무사·변호사'

정례 상담 통합 운영' 실시

김제시는 지난 9일 김제시에 재능기부로 등록한 마을세무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국제·지방세·생활법률 등을 마을세무사·마을변호사가 읍면동에서 직접 방문하여 무료 상담해주는 '마을세무사·마을변호사 정례상담 통합운영' 서비스를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마을변호사 정례상담 통합운영' 서비스는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각 읍면동사무소를 세무사와 변호사가 출장 방문하여 주민들의 국제·지방세·지방세 불복청구 등 세금 문제와 생활 법률 및 법적 절차 등을 무료 상담해 주는 제도로써 시민들이 한꺼번에 세금 및 법률 자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통합하여 두 번 방문하는 불편을 없앴다.

이는 김제시가 무변촌(無辨村) 지역 주민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인근지역 변호사의 재능 기부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 서비스"가 제도로 정착한 즈음, 지난 8월말 행정자치부와 법무부의 기관 간 협업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마을세무사와의 통합운영시스템이 정부3.0의 핵심 키워드인 기관 간 소통과 협업으로 이어져 농촌도시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민방위시·도

경진대회 대표팀 감독 위촉

정읍시는 오는 23일 경기도 수원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제41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 민방위 시·도 경진대회에 참가할 대표팀 감독을 위촉했다.

시는 대회에 전북도 대표팀으로 출전하는 정읍팀의 총감독(방목면 차용,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대표팀 감독에 민방위 강사인 이유영씨, 이은순씨, 김정욱씨 등을 위촉했다.

16개 시·도 대항으로 치러지는 민방위 경진대회에는 방목면 차용의 신장화씨, 심폐소생술의 양희연씨, 응급처치의 이연아씨와 유영미씨, 김은빈씨 등 5명의 대표선수가 출전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전라북도 대표팀 선발전전을 겸한 시·군 대항 민방위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정읍시여성민방위대가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대표팀으로 선발전했다. 시는 대회 우승을 위해 대표팀 강화훈련과 함께 훈련단을 꾸려 대회에 파견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국가 비상사태 시 시민들의 응급구조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응급처치 전도사 교육 강좌를 개설했다. 강좌는 이달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시청대회의실에서 운영되며, 모든 시민에게 개방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인구 두 달째 늘어

정읍시 인구가 7월에 이어 8월에도 27명이 늘어 두 달 동안 70명이 증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말 인구는 11만5천530명이다. 한 달간 인구변동은 전입이 508명, 전출은 529명으로 전입이 전출을 초과해 69명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또한 같은 기간 출생은 57명, 사망이 99명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자연감소 인구는 42명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올해 들어 인구 감소가 둔화되다 7월에 증가로 전환된 후 두달째 증가세로 나타난 것은 시가 전 시민과 함께 '15만 인구회복'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인구를 늘리기에 주력해온 성과"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년 간(11~15) 정읍시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매월 100여명이 감소해 연 1천200여명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봄철 정읍천변 벚꽃과 가을철 내장산 단풍 등 자연풍광이 수려한데다 내장산 단풍생태공원, 국민여가캠핑장, 워터파크, 정읍사공원과 오솔길 등 자전거길 주변에 다양한 볼거리가 많다.

꼭 가봐야 할 정읍역 자전거길

내장산~정읍사 공원 거쳐 이어지는 13km 구간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 선정

내장산~정읍사공원~KTX정읍역 간 13km의 자전거길이 행정자치부의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선정됐다.

행자부는 전국의 아름다운 자전거길을 추천받아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현지실사를 통해 접근성과 안전성, 경관, 주변 명소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정읍 내장산~KTX정읍역 자전거길 등 100곳을 선정했다. 행자부는 11월까지 홍보책자 발간과 자전거여행 수기 공모, 매년 아름다운

자전거길을 발굴하는 등 유지관리 및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읍 내장산~KTX정읍역 간 자전거도로는 자연형 하천의 제방길을 따라 조성돼 있다.

봄철 정읍천변 벚꽃과 가을철 내장산 단풍 등 자연풍광이 수려한데다 내장산 단풍생태공원, 국민여가캠핑장, 워터파크, 정읍사공원과 오솔길 등 자전거길 주변에 다양한 볼거리가 많다. 특히 내장산문화광장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KTX나 버스 등으로 방문,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어 더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김생기 시장은 "이번에 아름다운 자전거길로 선정된 내장산~KTX정읍역 간 자전거도로와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등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관계부서에 당부했다.

한편 행자부는 자전거 여행·레저를 활성화함으로써 자전거길 주변지역 관광 활성화와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아름다운 자전거길을 발굴, 100선을 선정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금산면, 추석맞아 기탁물품 저소득 가정에 나눔

백미·리면 등 방문 전달

김제시 금산면(면장 김민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불우이웃에 지원해달라며 기탁해온 물품을 저소득 가정에 전달 할 계획이다.

기탁된 물품으로는 금산면 시목마을 삼성농장(대표 정한숙) 백미 2,000KG(20KG·100포)과 신세계병원(병원장 김한주) 리면 55상자, 대순진리회 동곡성전(총무부장 고창식) 리면 80상

자로 마을 이장과 주민복지지원담당을 통해 저소득 가정에 직접 방문, 전달 할 계획이다.

금산면 소재 삼성농장과 신세계병원, 대순진리회 동곡성전은 평소 지역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해 명절에도 관내55개 경로당과 180여명의 독거노인, 불우가정에 1,000여만원의 물품을 지원하는 등 해마다 잊지 않고 저소득층에 대해 꾸준한

나눔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민원 금산면장은 "이웃을 위해 따뜻한 사랑의 뜻을 전해준 삼성농장(대표 정한숙)과 신세계병원(대표 김한주), 대순진리회 동곡성전(총무부장 고창식)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는 저소득층 가정과 고령자를 돌보아 줄 수 있도록 하고 귀감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생활불편사항 현장처리반 운영

사회취약계층 10가구 대상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둔 지난 9일 9개반 33명으로 구성된 「생활불편사항 현장처리반」을 용지면 예촌농원마을에서 사회취약계층 10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했다.

자원봉사자와 관련 공무원으로 조직되어 사회취약계층의 작은 생활불편사항을 직접 찾아가 살피고 해결하는 현장처리반은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로 운영되었다.

특히 이번 현장처리반은 '찾아가는 행복발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라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협조를 받아 이동세탁차량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및 장애우 가정을 대상으로 부피가 큰 이불빨래 등 직접 하기 어려운 빨래를 대신 해드리는데 '이불빨래사업'을 실시하여 여름철 내내 목은 빨래를 깨끗이 세탁함으로써 어르신 및 장애우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매년 현장처리반 운영때마다 사회취약계층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전기 점검반과 패트롤방범사대(회장 이길선)는 안전한 추석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에도 아침 일찍부터 출동해서 노후되어가 파손되어 사용하기 곤란한 전기·등기구·전선·콘센트·스위치 등을 교체하거나 꼼꼼하게 수리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우·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큰 격려를 받았다.

이밖에도 건강검진, 방역·소독, 가스점검, 하수·우수구·위험시설물 점검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고 진정성 있는 활동을 수행했다.

이날 세번째 현장처리반 운영에도 직접 참여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이건식 김제시장은 "민족의 큰 명절 한가위를 목전에 두고 여름철 내내 목은 이불을 세탁하고, 작지만 꼭 필요한 전기·가스 점검 및 보수 등 생활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하고 돌아오게 되어서 마음이 개운하다"며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하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작은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노력

정읍시, 포획활동·순찰강화

정읍시가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최근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는 물론 마을 인근까지 야생동물이 출몰해 인명피해 등이 우려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3월부터 4천500만원의 예산을 27농가에 지원, 피해예방 시설인 태양광 목책기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수확기를 맞아 피해가 급증함

에 따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 주야간으로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의 출몰지역에 출동해 포획 활동은 물론 순찰을 강화 실시하고 있다. 시는 또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두 60여건 넘는 피해 신청이 접수됐다. 시에 따르면 피해신청은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추후 현지 조사와 확인을 거쳐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보상을 지급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해당화로타리클럽

불우이웃 7가구에 생필품 전달

민족 고유의 추석명절을 앞두고 부안해당화로타리클럽(회장 김정남)회원들이 관내 외롭게 생활하는 불우이웃 7가구에 이불과 리면을 전달 온정의 손길을 펼쳤다.

지난 7일 부안 4개 로타리클럽과 시장사인회 이장단과함께 부안시장 안에서 다문화가정 노래자랑을 개최, 김정남 회장이 1등 100만 원 2등 50만 원 상단에 상금을 전달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부면, 두승산 청정 메밀축제 개최

13~16일까지 추석전후로

고부면 제10회 두승산 청정 메밀축제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추석명절 전후 4일 간 고부면 입석리 발래 언덕 일원에서 열린다.

13일 놀레종년제를 시작으로 맷돌갈기와 벼탈곡, 방아질기 등 농경체험 행사와 풍물놀이, 품바공연, 김도형 트럼펫공연, 트롯가수공연, 7080통기타공연, 색소폰공연 등이 펼쳐져 귀성객과 관광객들의 가을 감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역 농특산물인 메밀과 흑미, 활보리, 고구마, 잡곡 등의 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하고, 군밤과 군고구마 시식행사가 열린다.

축제무대인 고부를 들어서는 입구에 펼쳐진 발래언덕은 하얀 소금을 뿌려

놓은 듯한 메밀밭과 늦게 자란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에 제격이다. 동학혁명의 발상지인 고부에는 동학농민혁명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대피마을 동학농민혁명 홍보관'이 마련되어있어 가족단위 귀향길 관광객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가을 이맘때쯤 단풍미인쌀 최대 규모 재배단지인 놀레평야는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모습과 고부천 제방 주변으로 흐드러진 갈대밭이 어우러져 최근 사진 촬영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면 관계자는 "특히 놀레평야는 놀레정 아래로 펼쳐지는 금빛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풍성한 추석 연휴에 꼭 한번 찾아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번 기념식에서는 김기현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북지부장, 송슬기 부안해경 명예홍보대사 등 6명에게 감사장이 수여됐다.

부안해경, 해양경비안전의 날 기념식

63주년 해양경비안전의 날 기념식이 9일 부안해경서 대강당에서 의경, 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폭풍이 몰아쳐도 국민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란 슬로건으로 김기현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북지부장, 송슬기 부안해경 명예홍보대사 등 6명에게 감사장이 수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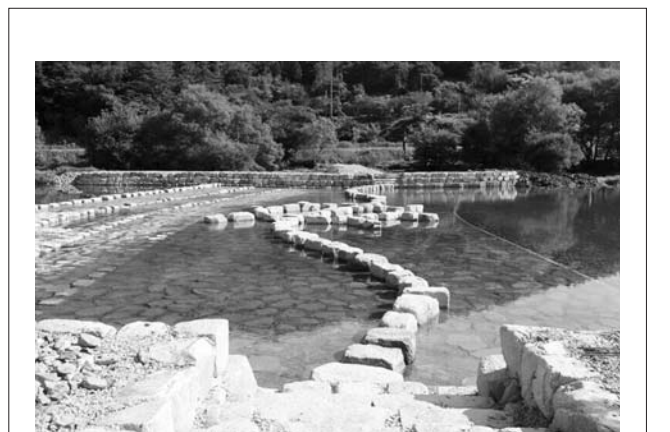
또, 박종묵 기획운영과장이 대통령 표창을 김민성 경장 등 5명에게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 이 밖에 업무유공자 17명이 서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과 부안해경서장 표창을 각각 수여받았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무총리 축사를

통해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활동과 불법조업 단속, 해양오염 방지는 물론 안전의 열쇠는 국민의 삶이 현장에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현장중심의 안전행정에 전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조성철 부안해경서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바다에서 파도를 이겨내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해양경찰관들이 있기에 안전한 바다가 만들어진다"면서 "미래를 위한 해양강국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 바다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시는 구절초테마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옛 정취를 느끼며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5월 기존 징검다리 보수 계획을 수립, 이달 8일 징검다리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추억의 징검다리 기억하시나요?"

정읍시, 추령천에 75개의 돌로 구절초 모양 형상화

정읍시가 산내면 구절초테마공원을 휘감아 도는 추령천에 징검다리를 설치했다.

시는 구절초테마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옛 정취를 느끼며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5월 기존 징검다리 보수 계획을 수립, 이달 8일 징검다리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징검다리는 모두 75개의 돌로 구절초 꽃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다.

시는 "앞으로도 구절초 공원 주

변 공사 시 자연친환경 사업 추진을 통해 전국 최고 가을축제로서의 명성을 높이고 있는 구절초축제현장인 구절초테마공원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관광객들에게 풍성하고 의미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징검다리가 설치된 추령천은 산내면 옥정호 상류에 위치해 있고, 구절초 테마공원을 휘감아 돌아 흐르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자연형 하천이다. /정읍=김대환 기자